



반가웠던 장맛비...KIA “이젠 그만”

“비야 제발 그만 좀 내리면 안되겠나” 어느 수재민의 하소연이 아니다. 최근 전력 보강으로 상승모드로 돌아선 KIA 프런트의 답답한 마음이다.

올 시즌 전반기 마감에 이를 앞으로 다가온 18일 현재 비로 취소된 경기 수는 총 50경기(양팀 합계 120경기)로 8개 구단 평균 15경기다.

지난해 전반기에 취소됐던 35경기보다 무려 25경기가 많고 지난 시즌 비 때문에 추후 일정으로 편성됐던 65경기에 5경기 차로 접근한 상태다.

올 시즌 총 70경기를 치른 KIA는 8개 구단 평균보다 2게임 많은 17경기(홈 11, 원정 6)가 우천으로 순연했다.

KIA는 앞으로 우천 취소가 더욱 늘어날 경우 우천리그 때 타 팀에 비해 취소 경기 수가 많아져 마운드 운영 등에서 불리한

김진우 복귀 등 마운드 전력 보강 불구

‘취소’(17경기) 너무 많아 일정소화 빠듯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KIA의 비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주 현대와 올 시즌 6연패의 약연을 끊고 3승 1패의 상승세로 올라선 KIA는 지난 주말 2경기가 연속 취소된 뒤 장맛비가 막다 못해 원망스럽다.

KIA는 이번주 롯데와 홈 3연전도 김진우 등 ‘에이스’ 3총사를 총 가동, 3연승을 올리겠다는 필승의 각오를 다졌지만, 18일 또 다시 우천 취소로 ‘최고 승부 카드’인 그레이싱어마저 ‘버린패’가 됐다.

KIA는 지난 6일 두산전서도 5회 강우 쿨드 게임패를 당하는 등 올 시즌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프로야구를 총괄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잦은 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도 태풍 등으로 연기될 경기를 감안하면 ‘우천리그’ 기간은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거린다.

우천 취소 경기가 늘수록 일정 조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잔여경기 일정 때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단들의 불만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KBO는 ‘필름비’에는 경기를 진행하도록 경기 운영위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비가 오더라도 경기시작 직전까지 기다린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 쏟아진 대부분의 비가 폭우성 집중호우인 까닭에 성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도 때도 없는 장맛비에 냉감수만 앓고 있는 KIA와 KBO, 비가 멈추기를 기원하는 ‘기청제(祈晴祭·날이 개기를 비는 제사)’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LG액션스포츠 챔피언십’ 개막 세계 최대의 액션 스포츠 경연대회로 자리잡은 ‘LG 액션스포츠 챔피언십’ 2006년 대회가 네덜란드 예선전을 시작으로 공식 개막했다. /연합뉴스



김병현 6승 실패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18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7.1이닝동안 탈삼진 9개,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6승 사냥에 실패했다. 콜로라도는 1-3으로 패해 시즌 최다인 8연패의 늪에 빠졌다. /연합뉴스

■ 축구협 기술위원회, 아드보카트호 평가

“토고전 다득점 노렸어야 스리백 전환에도 문제점”

“토고와 첫 경기 전반전에 스리백(3-back)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토고전에 다득점을 노렸어야 했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2006 독일월드컵축구 16강 진출에 실패한 아드보카트호의 전술과 전지훈련, 선수 기용 등에 대해 처음으로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이명무 기술위원장은 18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 토고전을 평가하면서 “전반전에는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갑자기 스리백인 3-4-3 시스템으로 변화한 전술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드보카트 감독은 가나와 최종 평가전에서 포백을 썼다가 수비가 무너지는 걸 보고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스리백을 쓰려면 먼저 평가전에서 한 차례 정도 시험을 해봐야 했다. 늘 포백을 쓰다가 스리백으로 바꾼 게 선수들을 경직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기술위원은 “토고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역전에 성공하고 계속 밀어붙여야 했는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막판에 불을 풀려도 좋았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1승에 너무 집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토고전 2-1로 앞선 상황에서 관중의 아우성을 들어가면서까지 불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홍명보 코치의 말로는 ‘1승이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기술위는 또 아드보카트 감독이 전지훈련지를 스코틀랜드로 선택한 것과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했는지에 대해 “대체로 잘 됐다”고 평가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낯선 유럽 방식을 채택한 점이 아쉬웠다. 유럽에서는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이동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낯설었다”고 평했다.

신 위원장은 “토고전에 100%로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었다. 토고전에 임할 때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기술위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안정환을 교체 멤버로만 투입하고 경험이 풍부한 이을용 대신 이호를 미드필더진에 중용한 것에 대해 “선수 기용은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다. 그리고 선수를 놓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피했다.

北, 태국 9-0 대파 AFC 여자아시안컵 조별리그

북한 여자축구가 태국을 9-0으로 대파하며 아시아 최강 전력을 자랑했다. 북한은 18일 낮 호주 에들레이드 하인드 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리금숙과 김단실, 김영애가 2골씩을 터트리며 리은숙, 허순희, 조윤미가 한 골씩을 보태 태국을 9-0으로 눌렀다.

이로써 북한은 1승(골득실 9)을 기록하며 지난 16일 한국을 4-0으로 꺾은 호주(1승·골득실 4)와 미얀마를 2-1로 제압한 태국(1승1패·골득실 -8)과 나란히 승점 3점으로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에서 앞서 조 선두로 올라섰다. 북한은 경기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여 전반 8분 리금숙이 첫 골을 뽑아낸 데 이어 리은숙(전반 31분), 리금숙(전반 34분), 김단실(전반 36분), 허순희(전반 43분)의 연속골로 전반을 5-0으로 크게 앞서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억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

사건 발생 후 100%의 피해자를 도와주는 변호사, 100%의 승률을 보장하는 점쟁이, 그리고 내기 한 사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한 사연! 그의 이야기는... (text continues)

☎ 060-700-3658

진미령 아무진 꽃계장!

넉넉한 사람만 만드사 또 갖는다는 그 맛! 40만세프 판매기념, 최초구성에 7마리 추가

■ 100% 천연 재료 사용 100% 만족

■ 바쁘게 먹는 식사 - 미용도 바쁘게

진미령 아무진 꽃계장 BARRIO'S

구입문의 080-440-8080